2009. 6. 25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극동러시아 항만 수송산업단지 개발 계획

1. 배 경

□ 아시아·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 극동지역 항만의 중요성 점증

○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함께 러시아의 석탄 및 철강 등의 수출량 증가로 극동지역 항만의 취급화물량이 늘어나 극동항의 중요성이 높아짐.

○ 극동러시아 5대 항만(보스토치니·나호트카·바니노·블라디보스토크·포시에트항)의 2008년 물동량은 보스토치니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

[2008년 극동러시아 5대 항만의 물동량 현황]

(천 톤, %)

구 분	항 만	물동량	전년대비 증감률
연해주	보스토치니	14,998	-8.0
	나호트카	7,367	34.8
	블라디보스토크	5,914	2.2
	포시에트	2,824	21.0
하바로프스크주	바니노	6,221	62.8
	합 계	37,326	8.3

자 료: KOTRA

□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개발 본격화에 따른 항만시설 확충 필요

○ 최근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항만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러시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30년까지의 수송전략'을 발표하는 등 항만 정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지역 창구로의 발전을 위한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주간 항만개발 경쟁 심화

○ 하바로프스크주의 소비에트카야 가반항이 보스토치니 등의 연해주 항만들을 제치고 먼저 항만경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하바로프스크주는 이번 경쟁에서 연해주를 앞서게 됨.

○ 연해주는 극동지역 유일한 부동항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아태지역 창구 역할을 하는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가. '바니노·소비에트카야 가반' 복합수송단지 조성

□ 바니노(Vanino)항과 소비에트카야 가반(Sovetskaya Gavan)항을 통합하여 복합수송단지로 개발

○ 바니노항은 시베리아횡단철도, 바이칼-아무르 철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의 항로와 연결되어 있는 극동지역 주요 항구임.

○ 소비에트카야 가반 항은 개발이 늦은 편이나, 극동 연안에서 가장 수심이 깊고, 항구 확장이 가능한 좋은 지리적 조건을 보유

○ 동 복합수송단지 조성은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극동지역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서부~미국 태평양안 북부 수송 경로에 있어 약 1,000km 이상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음.

□ 바니노항 및 소비에트카야 가반항 인프라 개발을 통한 수송능력 확충

○ 러시아 연방 및 하바로프스크 주정부는 바니노항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바니노항 개발을 위해 실시된 사전평가에 따르면 2009-2011년 3년간 항만 시설과 인프라 현대화에 총 13억 루블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됨

-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신규 터미널 건설, 창고의 개보수, 크레인 등 하역설비 개보수 등 추진

○ Rusal(알루미늄제조), 알카임(임업), SUEK(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 아무르메탈(철광업) 등 대기업들도 '바니노-소비에트카야 가반' 수송단지에 자사의 터미널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

○ 지금까지 발표된 연방 및 주정부의 개발 계획을 종합하면 '바니노-소비에트가반 수송단지'의 화물취급량은 현재 천만 톤에서 2025년에는 1억 톤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에트카야 가반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대수심항 건설

○ 소비에트카야 가반灣 내의 수심이 23m로 깊고 항만의 확장 가능성이 큰 지리적 이점을 이용, 인프라 개발을 통해 30만 톤까지의 대형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대수심항을 건설할 예정

나. 주변 인프라 개발 계획

□ 철도 수송능력 확충

○ 러시아 국영 철도회사인 RZD는 철도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칼-아무르 철도의 현대화 및 개보수 작업에 착수

- 총 길이 4km가 넘는 크즈네초프 터널을 신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며, 동 터널이 개통될 경우 바이칼-아무르 철도의 수송능력은 현재의 1,200만 톤에서 5,3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터널 공사의 소요재원은 러시아 연방투자기금으로 조달

□ 도로망 정비

○ 자동차 도로망 정비는 수송산업 복합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서 불가결하며, 이에 따라 하바로프스크 지방정부도 장기 개발전략 속에서 바니노와 소비에트카야 가반 지역의 도로망 정비를 검토하고 있음.

- '하바로프스크~리드가~바니노' 간선 도로의 건설이 2013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바니노 항이나 소비에트카야 가반항으로의 차량 수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전력공급 확충

○ ‘2013년까지의 극동·자바이칼 개발프로그램’에 따라 소비에트카야 가반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콤소몰스크에서 바니노와 소비에트카야 가반까지는 송전망이 건설되어 지역내 전력공급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

다. 항만경제특구 설치

□ 극동지역 하바로프스크州의 소비에트카야 가반(Sovetskaya Gavan)항을 항만경제특구[1]로 지정

○ 러시아 정부는 소비에트카야 가반灣 동쪽지역을 최초의 항만경제특구로 지정(2008.6.2)하였으며, 총 면적은 4.5㎢ 규모임.

[바니노·소비에트카야 가반항 위치]

1) 러시아는 2005년 경제특구법(Law on Special Economic Zones in Russian Federation)을 도입한 이래, 2005년 산업생산특구와 기술발전특구를 설치하고, 2006년에는 관광 및 위락시설 특구, 2007년 11월 항만특구를 추가 도입

□ 경제특구 지정기간은 총 49년(2008년 ~ 2056년)으로 동 기간중 특구 개발을 위해 고정자본투자 867억 루블, 인프라 개발투자 204억 루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항만특구를 국제적이고 다각적인 항만·선박수리 센터로 조성하고, 인접지역에는 선박수리, 목재 및 수산 가공 등의 공업 생산시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물류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임.

□ 현재 항만경제특구 개발은 준비단계이나 국내외 여러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 하바로프스크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10 ~ 12개의 국내외 기업이 특구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외국기업으로는 싱가폴의 Yantai Raffles 조선소가 동 특구에서 대륙붕 개발을 위한 해상구조물 및 특수선박을 제조할 계획

- 러시아 기업으로는 Aricom사가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등을 위해 총 452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

3. '소비에트카야 가반' 항만경제특구[2] 설치 주요 내용

□ 항만경제특구내 허용되는 사업활동

○ 항만 운영(화물의 적하, 창고 보관)
○ 항만 인프라시설 신규 건설 및 개보수
○ 컨테이너업
○ 선박 수리, 유지 보수 및 현대화
○ 수산물 가공업, 도매업 등

□ 경제특구 지정기간 : 49년 (2008년 ~ 2056년)

○ 항만특구는 인프라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대규모이고 투자비용 회수기간도 장기임을 감안, 특구기간을 산업생산특구(20년) 보다 긴 49년으로 정함.

2) 공식 영문명은 "Sovetskaya Gavan" Port Special Economic Zone임.

□ 입주 조건

○ 소비에트카야 가반 지방정부에 등록하고 항만경제특구 당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업에 입주 허용

○ 항만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신규 건설사업은 1억 유로, 시설 개조사업은 3백만 유로 이상 요구

○ 항만사업(port operation)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은 세관당국에 관세 지급을 보증하는 아래 금액의 보증서 제출이 필요

- 물품세(excise goods) 부과대상 상품과 천연자원을 포함한 상품의 창고, 보관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경우 : 3천만 루블 이상
- 물품세 부과대상 상품 및 천연자원을 제외한 상품의 창고, 보관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경우 : 1천만 루블 이상
- 기타의 경우 : 2백 5십만 루블 이상

□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

○ 항만특구 내에 유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혜택 부여

-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18%)를 면제하고, 러시아 국내에서 항만특구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관세 및 물품세를 면제

○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법인세[3](지방정부 귀속분) 감면, 단 법인세는 최저 13.5% 이상
- 5년간 재산세 및 토지세 면제

○ 항만경제특구에 대한 개발 투자가 장기가 소요됨을 감안하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시 그랜드파더 조항(Grandfather Clause)을 적용

* 그랜드파더 조항(Grandfather Clause) : 법률개정 이전의 감면규정을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기득권을 인정하는 규정

3) 현행 러시아 표준법인세율 : 20%(연방정부 귀속분 2.5%, 지방정부 귀속분 17.5%)

4. 향후 전망

□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 존재

○ 러시아 항만은 민간 전용 부두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항만 정비계획의 재원도 대부분 민간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바,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민간투자가 지연됨으로써 현 개발 계획이 변동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

□ 특구 설치로 기대되는 선박수리 산업의 회생가능 여부는 불투명

○ 구 소련시대 소비에트카야 가반에는 정부가 관할하는 2개의 선박 수리공장이 있었으나, 이들은 1990년대 들어 국가 발주가 줄어들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사실상 선박 수리시장으로부터 퇴출된 상태임.

○ 항만특구 설치로 선박수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기존의 중국 및 한국 선박수리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선박수리 산업의 회생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항만 개발이 지속될 전망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항만 개발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바니노·소비에트카야 가반 수송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근저에는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 확대라는 목적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항만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전문연구원 고안나(☎ 02-3779-5654)
E-mail : anna@koreaexim.go.kr